면목동 노후주거지에 35층·145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면목 69-14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모아타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주거지가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면목동 69-14일대는 최고 35층, 1450세대 내외의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며 "모아타운 사업을 앞둔 주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주거환경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경계 없는 저층부 계획을 통해 열린 아파트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연계 배치했다.

향후 인접한 모아타운 사업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의 주로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보행로와 차선이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이 일대는 단지 내 외부공간,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돼 활기찬 지역의 생활가로가 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약 3000㎡ 규모의 공원이 생긴다. 가로의 교차지점에 공원을 만들어 가로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높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시는 강조했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원 하부에는 생활체육 시설이, 상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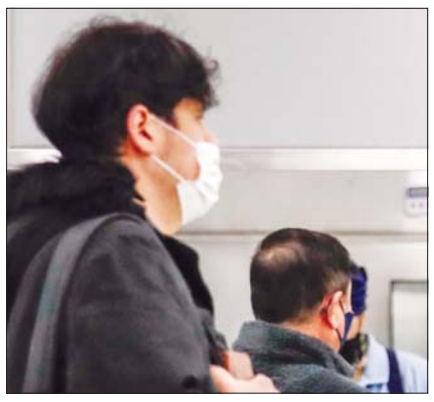
아파트의 주동이 주변 지역을 위압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조망지점에서 용마산 등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다.

면목동 69-14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때 관련 심의가 한꺼번에 이뤄져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

'노마스크 개강'에 엇갈리는 대학생들

10명 중 7명 '마스크 안 벗는다'
마스크 없는 캠퍼스 활동 낯설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지배적


서울시내 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줄 서 있다. /뉴시스

약 4년 만에 캠퍼스 '노마스크'가 가능해졌지만 개강을 맞은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23학번을 포함한 대학생 1110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72.9%는 약 4년 만에 찾아온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OT, MT, 축제, 동아리 등 대면 캠퍼스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65.4%(복수 응답)의 응답률을 차지하며 가장 큰 요소로 꼽혔고 ▲대학 동기, 선후배 등 친목 도모 및 소통이 늘어날 것 같아서(47.6%) ▲대면 수업이 대폭 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36.0%) ▲교환학생, 해외 봉사 등 학교 지원 대외활동이 늘어날 것 같아서(25.7%) ▲조별 과제, 발표 등 수업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뒤이었다.

반대로 캠퍼스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대학생도 27.1%로 집계됐다. '마스크 없는 대면 캠퍼스 활동이 낯설고 어색하다(26.9%)'는 의견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23.9%)'가 지배적이었고, ▲비대면 수업이 대폭 줄어들 것 같아서(15.9%) ▲용모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13.6%) ▲불필요한 대면 캠퍼스 행사 및 약속이 늘어날 것 같아서(12.0%)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해제 시설이 혼란스러워서(7.0%)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비해,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절반(50.0%)은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계획이라 답했고, 5명 중 1명(20.8%)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48.7%, 복수응답)'으로 집계됐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서(45.0%) ▲마스크 벗은 모습이 낯설고 어색해서(34.1%) ▲용모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22.9%) ▲독감, 알레르기 등 질환을 피하고자(22.0%)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11.7%) 등 다양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꼽혔다.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보다 주위 분위기나 방역 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34.5%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질 때, 17.6%는 실내외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겠다고 답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원가심사로 작년 예산 1626억 절감

전국 최초 계약심사제도 도입

서울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자치구·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4조 1032억원(절감률 약 7%)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한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3조6247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1489건(2조5047억원), 용역·물품·민간위탁이 2138건(1조1199억원)이었다.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이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새 학기 등교 격려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 교육감은 2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마중했다. 등교맞이에 나선 조 교육감과 종암중 교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가움을 나눴다. /뉴시스

인천시, 새 신청서 건립에 '국제설계공모'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목표

인천시는 2일 신청사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이 목표다.

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69,091.1㎡, 연면적 80,417㎡, 공사비 2,117억 원, 총 설계비 94억 원으로 다양한 방식의 설계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국제입찰 방식으로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해 참가 등록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시는 기술심사와 2차례 본심사를 거쳐 6월 19일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품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본심사위원 8명(예비위원 1명 포함), 기술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설계공모 지침서에 공개돼 있다.

최종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모 보상금이 나뉘어 지급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VE)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신하고 좋은 설계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건축가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의 기자

의원·약국에 '복지상담센터' 안내판 배포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내 의약 기관 7004곳에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관공서 방문을 꺼리거나 지원 제도를 알기 어려운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4~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 자치구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시설이다.

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이나 그를 잘 아는 이웃 등이 상호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의원, 약국, 치과 같은 의약 기관에 센터 안내판을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